“혁신안 성공 위해 힘을 모아 달라”

새정치 충남 기초의원, 혁신안 지지 성명 발표

오는 16일로 예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새정치 소속 충남 기초의원들이 당내 갈등에 대해 우려하며, 혁신안을 지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 소속 기초의원들의 이같은 성명발표는 당내 혁신안과 관련되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이같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기초의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혁신안과 관련한 당내 갈등이 결과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뒤, “당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안을 더 힘있게 추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혁신안은 그 어느 때보다 당원들과 국민으로부터의 기대가 높다”는 충남 지역의 여론을 설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충청남도 기초의원들은 중앙당 지도부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함께 대안을 만들자”고 호소한 뒤,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새정치민주연합 충청남도 기초의원 일동의 성명서는 12일 당진에서 작성되었으며, 40여 명에 가까운 기초의원이 모여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